

광주시, 아세안 시장서 1천43만달러 수출 상담 성과

인도네시아·싱가포르 시장개척단 파견
알제이벤처스 등 지역기업 9개사 참여
상담 160건·MOU 11건 해외판로 확대

광주시가 급변하는 세계 통상환경 속에서 중소기업들의 수출 저변 확대와 시장 다변화를 위해 동남아시아 시장 개척에 나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

22일 광주시에 따르면 최근 인도네시아와 싱가포르에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해외시장개척단'을 파견해 수출 상담 160건(1천43만달러), 양해각서(MOU) 11건(177만달러)의 성과를 올렸다.

시장개척단 파견은 보호무역주의 심화 등 불확실한 세계 경제 상황에 대응해 지역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제 시장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광주시와 경남도가 공동으로 개최해 현지 바이어들의 관심도를 높였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협력해 진행한 이번 시장개척단에는 알제이벤처스 주



광주시는 최근 인도네시아와 싱가포르에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해외시장개척단'을 파견, 수출 상담 160건(1천43만달러), 양해각서(MOU) 11건(177만달러)의 성과를 올렸다.

〈광주시 제공〉

식회사, (주)포인트코리아, 퓨어밸리, 주식회사 유창종합식품, 티비엠(주), (주)유니통상, 션 글로벌 인터내셔널, 뽀에파, 주식회사 라피네제이 등 중

합소비재 분야의 지역 유망 중소기업 9개 사가 참여했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수출상담회

에서는 화장품을 제조하는 알제이벤처스 주식회사가 51만달러를, 신선농산물 유통기업인 (주)유니통상이 30만달러의 수출 계약을 체결했

다. 특히 화장품을 제조하는 주식회사 라피네제이는 자카르타와 싱가포르에서 각각 50만달러, 20만달러의 수출 상담을 이끌어내며 이번 수출상담회에서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또 영유아 간식 제조업체 션 글로벌 인터내셔널도 인도네시아와 싱가포르에서 각각 2만달러, 3만달러의 수출 상담 성과를 거뒀다.

이번 시장개척단은 싱가포르 소재 전문 물류 기업 창고를 방문해 현지 물류·유통 실태와 시장 동향을 직접 점검하고 시장 진출 전략을 구체화했다.

광주시는 이번 수출상담 및 양해각서 성과가 실제 수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외물류비 지원, 해외지사화 사업, 무역보험료 지원 등 체계적인 후속 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오영걸 경제창업국장은 "최근 중동 정세 등으로 세계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시기에 이번 수출상담회가 지역 기업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고 해외 진출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며 "지역 수출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당당히 경쟁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변은진 기자

나주 좋은영농법인 과일 곤약젤리, 美시장 진출

전남도 지원으로 로컬 유통망 입점
8월부터 2천여개 매장에서 판매 예정

전남도는 22일 "나주 소재 좋은영농조합법인이 생산한 과일 곤약젤리(사진)가 미국 대표 유통체인 타겟(Target)에 입점했다"고 밝혔다.

과일 곤약젤리는 사과·포도·복숭아·딸기 등 4종의 과일로 만들었다. 수출 초도 물량은 35만 달러 규모로 오는 8월1일부터 미국 전역 2천여개 매장에서 본격 판매될 예정이다.

이번 입점 성과는 전남도가 지원한 2024년 뉴욕 팬시 푸드쇼 참가를 계기로 이뤄졌다. 당시 현지 바이어와의 상담을 통해 상품 경쟁력을 인



정받으며 현지인 로컬 유통망 진입으로 이어졌다.

2006년 설립된 좋은영농조합법인은 착즙 음료, 급식용 컵음료, 스틱형 젤리 등을 생산하는 농식품 가공업체다. HACCP, 식품 안전 시스템 인증(FSSC22000), FDA 공장 인증을 비롯해 기

술혁신형 중소기업, 수출유망 중소기업, 유기 가공식품, 스타팜 인증 등을 보유하고 있다. '헬로아이' 시리즈 배·도라지 음료 등을 미국과 중국 등에 수출하고 있다.

이기선 좋은영농조합법인 대표는 "이번 타겟 입점은 곤약젤리가 미국 메인스트림 시장에 진출한 첫 사례"라며 "올해 100억원 매출 달성을 목표로 전남 농산물을 활용한 가공식품과 기능성 음료의 수출 확대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신현근 전남도 국제협력관은 "전남 농수산물 품이 한인 시장을 넘어 글로벌 주류 유통망에 진입한 대표 사례"라며 "앞으로도 해외 박람회 참가와 바이어 매칭 지원을 통해 수출 기반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양시원 기자

市 "봄철 광견병 예방접종하세요"

내달 1-15일 접종비 5천원에 가능

광주시는 22일 "반려동물과 시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5월1-15일 '봄철 광견병 예방접종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접종 대상은 광주시 거주 반려견·반려묘다. 단, 임신 또는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접종이 안될 수 있다.

광주시는 백신 4천170마리 분량을 지정 동물병원 이곳에 선착순으로 지원한다.

접종을 희망하는 시민은 동물등록증 또는 동물등록장지(외장형·인식표)를 지참해 지정 동물병원을 방문, 예방접종하면 된다.

광견병 예방접종 비용은 평소 2만원 안팎이지만 이 기간에는 5천원만 내면 된다.

지정 동물병원 현황은 광주시 누리집 공지사항과 120콜센터(062-120)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변은진 기자

전남 5·18 사적지 전문해설사 운영

도, 학생·관광객 대상 맞춤형 해설 지원

전남도는 22일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5·18 역사해설사 운영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5·18 관련 주요 사적지와 시설을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전문 해설을 제공해 역사를 쉽게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남도는 2020년과 2022년에 이어 올해 3월까지 전남 5·18 기념사업위원회를 통해 역사적 가치가 높은 장소 30개소를 전남 5·18 사적지로 지정·정비했다. 현재 역사해설사 18명이 활동하고 있다.

역사해설사는 이론 교육과 현장 답사, 실습 교육을 수료한 전문인력으로 단순 안내를 넘어 생생한 역사 해설을 제공한다. 학생, 청소년, 일반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해설을 지원, 교육 효과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해설 프로그램은 5명 이상의 단체 신청 시 이용할 수 있다. 이용 희망자는 방문 1주일 전까지 전남도에 신청하면 된다.

시·군별로 운영하는 8개 코스 중 하루 최대 2개 코스에서 해설을 들을 수 있다. 신청자와 해설사가 일정과 코스를 조율할 수 있다.

이건재 자치행정과장은 "지역 주민이 참여하

는 해설사 운영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사회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며 "전남의 5·18 정신이 세대를 넘어 계승되고 전국적으로 확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양시원 기자

전남농기원 '배 어깨동무컨설팅'

전남도농업기술원은 22일 "도내 배 재배 농업인과 전문가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영기록 데이터를 활용한 '배 어깨동무컨설팅'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컨설팅에서는 기후변화로 인한 배 농가의 어려움을 공유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재배기술 변화와 품종 갱신 방향에 대해 전문가 조언과 선도농가 사례가 제시됐다. 아울러 도매시장 유통인이 참여해 최근 시장에서 선호하는 품종과 고가 판매 전략도 안내했다.

농가 간 경영기록 분석 결과, 상위 농가의 직거래 비율은 27%, 하위 농가는 17%로 나타나 직거래 비중이 소득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서는 소비자가 선호하는 규격과 품질의 배를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지속적인 구매로 이어지는 충성 고객 확보가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김재정 기자

묘 이강 · 개강

가족묘 조성 / 개강 / 묘지이강 / 유골함 / 자연장

맞춤형 묘지이강 전문 ☎ 문의) 062-464-3466